



욕쟁이는 정말 악할까



영화 '내 말 좀 들어줘'

처절하게 내뱉는 삶의 상처들
나 너무 아프다는 절박한 호소
결 다른 외면과 내면의 캐릭터
표정 연기로 섬세하게 그려내
고독과 소통 부재의 현실 생생

-나무들은 그리고 황폐한 내부를 숨기기 위해 크고 넓은 이파리들을 가득 피워냈다. (기형도,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은백양의 숲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기형도, '대학 시절')

차마 말하기 힘든(hard) 절그러운 진실(truth)이 있기 마련이다. 끝내 좋아할 수 없는 모난 사람도 주변에 꼭 1명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상대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슬프게도 오고는 한다. 그때, 직설적으로 말할지, 돌려 말할지, 침묵할지, 이것이 문제다. 왜 문제일까? 타인의 마음에 상처 내지 않으려는 도덕성이 내면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에게 폭언으로 마구 상처를 내는 욕쟁이가 비도덕적이라고 여겨지는 현실과도 통한다. 욕쟁이는 정말 악할까.

욕쟁이가 주인공인 영화 '내 말 좀 들어줘(2025)'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보여준다. 가시처럼 날카로운 극언을 거침없이 내뱉는 이가 사회에서 미움받고 배척당하기 십삼십을 떠올리면, 막말이 주특기인 빌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 영화의 용기는 상당히 과감하다. 어쩌면 다소 극

단적인 면까지도 있다. 그만큼 영화의 감정적 결이 울퉁불퉁 험글어질 우려도 품을 만하다. 그러나 그 제목대로 영화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이 우려가 한낱 기우였음을 깨달을 수 있다.

'내 말 좀 들어줘'는 내면의 진실과 외부로 향하는 발화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부드럽게 연출한 영화로 감촉될 때, 그 진실과 서사가 매끄럽게 파악된다. 주인공 팬지가 까칠하기 그지없는 초과민성 캐릭터임에도 이토록 섬세한 결을 지닌 영화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연기-음악-연출이 부드러운 조화를 이룸에 있는 것 같다. 이 삼박자가 성공적으로 결합 덕에 폭신폭신한 결이 형성될 수 있었다.

영화의 영어원제가 '힘든 진실(HARD TRUTHS)'임은 의미심장하다. 픽 저속한 언행 때문에 공공의 적으로 취급되는 팬지가 버거운 진실의 여린 알몸을 체화한 캐릭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거칠기 짝이 없는 욕설을 맹렬히 퍼붓는 팬지가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었음은 얼핏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비난은 그녀의 표층적 행동만 피상적으로 인식한 처사일 수 있다. 공격성이 강할수록 그만큼 내면의 심층이 예민하고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타인에게서 공격을 당해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 심리가 타인에게 먼저 공격을 가하는 행동으로 발현되는 격이다.

영화 '내 말 좀 들어줘' 줄거리

팬지는 거친 막말과 저속한 욕설을 타인들에게 거리낌없이 내뱉는 캐릭터다. 그런 그녀를 남편 커틀리와 아들 모지스조차도 멀리한다. 팬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고독을 이해해 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은 그녀의 여동생 샬넬뿐이다. 샬넬은 어머니날 기념 가족 파티에 팬지를 초대하나, 샬넬의 딸들은 팬지의 모난 성격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그 파티에서 팬지는 모지스가 자신을 위해 꽃을 선물로 샀다는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린다.

마이클 리 감독 소개

마이클 리의 전작 '비밀과 거짓말(1996)'은 자기 생모에 관한 진실을 찾는 호텐스(마리안 장 밥티스트 배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가족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비밀과 그 비밀을 숨기려고 가족에게도 거짓말하고는 하는 가족 관계의 역설을 부드러운 흐름으로 전개한다. 그가 감독한 '세상의 모든 계절(2010)'은 연인과 공감이 얼마나 흔하고도 고단한지 차분히 보여주는 또 다른 영화다.

주인공 팬지역 맡은 마리안 장 밥티스트, 스틸컷

비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라.

한영임 지음 | 27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